



## 20. 보석 디자이너가 되는 길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현장 탐방 - 보석 디자이너</li> <li>▪ 보석 디자이너에 대한 이해</li> <li>▪ NCS를 통해서 본 보석 디자이너</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직업 전문가를 통한 보석 디자이너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li> <li>▪ 보석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li> <li>▪ NCS를 통해서 보석 디자이너로서 진로 수업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li> </ul>

### <직업현장 탐방>

대한민국의 영원한 피겨 여왕, 김연아의 무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준 핫 아이템. 시상식 각종 화보에서 여자 연예인들을 한층 더 빛나게 해준 이것! 여자의 인생에서 단 한번인 순간, 낭만적인 프로포즈를 받는 그때 빠질 수 없는 바로 이것. 화려함 속에 정교함이 숨어 있다. 여자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매력적인 아이템을 만드는 사람들. 반짝이는 보석을 디자인하는 최우현 디자이너를 만나 뵙니다. 주얼리 디자이너란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액세서리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그 중에서 조금 고가품을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막연히 주얼리 디자이너가 뭘 할까? 어떤 직업일까? 하면 광범위해요. 굉장하.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참 재미있는 직업이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또 좋아하는 직업이고요.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들이라는 거 그게 좀 큰 특징이에요. 개성과 표현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며 세련된 주얼리 스타일링에 중요성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추세. 화려한 주얼리는 각종 패션에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에 따라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주얼리를 만들어 내는 주얼리 디자이너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분야도 다양하대요. 커머셜 주얼리라는 이제 상업적인 주얼리가 있고, 좀 아트 디자인 주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예요. 그래서 한 작품씩 만드는 걸 좋아하죠. 일단은 판화하고 그림하고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판화는 똑같은 디자인을 여러 개 찍어내죠. 뭐 20장이 됐든, 100등에 됐든. 뭐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림이라는 건 페인팅은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얼리를 대량생산하는 그런 것이 있고 핸드 메이드로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만들고 하나의 작품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후자라는 거죠. 주얼리 관련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 이에 따라 대학과 전문학교 등에 주얼리 디자인학과, 금속공예 학과, 귀금속 공예학과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 중 어떤 곳

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 전공을 주얼리 학과를 가면 제일 좋고, 아니라면 그냥 미술대학을 가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전공을 했던지, 전공을 안 했던지 요즘 학원들이 많아요. 이런 학원들이. 그래서 학원에서 1년 정도 배워가지고 대학원을 사실 다시 금속공예나 주얼리 학과로 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저희 때는 홍대나 서울대에 있는 미술 대학을 제일 쳐주고 알아주고 이랬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 요즘은 신생대학 중에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 금속 쪽을 굉장히 그 많이 학교에서 미뤄줘서 특히 주얼리 학과가 굉장히 좀 우수하고요. 어떤 학교가 좋다고보다는 이제는 조금 평준화가 되는 게 학교 자체는 유명한 학교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교수진들은 거의 다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 자기 그냥 능력에 맞게 들어가면 될 거 같고요. 단지 보석을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도전은 금물! 브랜드에 컨셉을 고민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끈기와 열정도 따라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 주얼리 작업이 좋았고, 그래서 뭐 작업장에서 거의 쫓겨 날 때까지 학교에 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 수의아저씨가 이제 문 닫고 학교 이제 문 닫아야 한다고 할 때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태리 사람들도 감동을 한 거죠. 재는 뭐 근성이 있구나. 아름다운 사람한테 멋진 디자인의 장신구를 해주려면 그 디자인너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시사, 교양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예술 쪽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배워야 되요. 그럼 여기서 잠깐! 주얼리 디자인너에 대한 편견 세 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유학을 다녀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편견인데요. 저는 이태리에서 공부했지만 어떤 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어떤 분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어떤 분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전 세계에서 공부하신 분이 다 와서 전공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대학에서 제일 많이 배워요. 그래서 왜 그래도 유학을 가야 되냐면 길게 가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느낌을 배우고 오는 거지 요즘 얘기한 느낌 아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느낌을 보러 가는 거지 절대로 막 몇 년씩 가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주얼리 디자인너는 과연 금남의 구역일까요? 언뜻 생각해봐도 어울리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 그걸 남자 여자 구분 질 필요는 사실 없는 게 그 요리사도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요리를 하고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주얼리도 꼭 여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남학생들이 하기에다 굉장히 좋은 직업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여자가 많은 업종에서 남자가 딱 들어가면 빨리 두각을 나타내요. 그래서 저희도 대학 때 보면 뭐 비율이 남자가 뭐 10분의 1도 안되지만 그 남자들 끝까지 살아남아요. 남성, 여성 가릴 수 있는 가리는 직업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편견입니다. 디자인너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미술적 감각에 남다른 재능과 소질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그림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패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 때는 이렇게 인형 같은 것 그려가지고 옷 입히는 거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맨날 그림 그리고 또 워낙 그림을 좋아 했었고 또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패션 쪽에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게 자기의 장점인지를 알고 그런 블루오션을 찾아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보석을 다루는 만큼 손끝만 움직이는 공주 같은 직업일 꺼라는 상상은 그만.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화려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덤비다가는 큰 코 다치겠죠. 제가 그걸 강조해요. 어디 강의가도 꼭 아름답고 우아하게 이렇게 있는 직업 아니라고. 그 뒷면에는 굉장히 거칠고 힘들고 그런 것. 패션 디자인도 마찬가지잖

아요. 막 이렇게 마지막 쇼에서 이렇게 멋있게 나오면 멋있지만 그 사람 맨날 바느질하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뭐 재료사고 다 똑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디자인라는 게 종이하고 연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너 하면 굉장히 우아한 직업인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손도 맨날 비고, 다치고, 때마다 데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런 거친 뒷모습이 있어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만큼 손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막연히 머리만 있고 뭐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어야 돼요. 젊은 여성들에 신종 유망 직업.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아 특수성이 남아 있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면 선생님처럼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주얼리라는 자체가 보석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가격대가 있어 갖고 한번만 실수해도 굉장히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된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과정이 좀 길어요. 마음먹고 해야 돼요. 너무 막 빨리 뭔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 대신 자기가 한 10년 이 일에 딱 투자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기 나름으로 돈을 좀 벌수가 있죠. 길게 생각해야 돼요. 그 대신 정년이 길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5-60때 되면 벌써 정년이 되고 건강만 허락한다면 80이 되도 작업을 할 수 있고 90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 멀리를 생각하면 그 어떤 직업보다 사실은 투자 대비 값어치가 있는 직업이죠. 한국 주얼리 디자이너의 1세대라 불리는 그녀. 그 동안 걸어온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때로는 화려했고 때로는 감동을 주는 수많은 작품 속에는 창작의 고통과 녹록치 않았던 작업의 순간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선택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대부분의 사람은 전공과 상관없는 일로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게 정말 안타깝지만 주얼리 쪽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떤 일보다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장신구 하나는 마법이에요. 이 하나를 함으로서 자신감 같은 것 자기가 자기한테 주술을 거는 거예요. 아, 난 너무 아름다워. 멋있어. 이런 거. 근데 그게 모든 생활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누군가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주얼리 디자인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해주면서 거기서 자기가 정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직업보다 이 직업이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NCS를 기반으로 한 직업탐구 보석 디자이너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워크넷에 일단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석 디자이너라고 하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검색이. 학생들한테 이제 보석이라고 검색하거나 디자이너라고 검색을 하면 주얼리 디자이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얼리 디자이너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행에 주얼리 디자이너는 흐름을 분석하고 소비자 기호를 파악해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 보석이나 귀금속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에 취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하고 특히 트렌드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재료들도 재질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그런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을 하고 수행 직무로 보면 렌더링에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거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도구들 손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겠지만 캐드라던 지 도면 도구들을 같은

것들 시안을 잘 만들고 그것을 이제 또 결정하고 아이디어 확인해서 디자인을 토대로 샘플링 잘 만들어 되거든요. 무조건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만들어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한 필요하다고 하면 나가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나가면 총괄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잡지나 신문이나 전사회나 인터넷이나 전문 매장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대한 설문이나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조사하고 이게 이제 상품성이 있어야 되니까 상품성도 조사해야 되고 이런 디자인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제 스케치해서 잘 해나가는 과정들, 제작, 도구, 그래픽, 프로그램 이런 부분 렌더링이라고 좀 말이 어려운데요. 아직 제작되지 않은 제품들 제 3자에게 제시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해서 실제화 같이 표현하는 완성 예상도 세공에 대한 정밀한 묘사가 이제 결정되는 걸 렌더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벌이 라던지, 바게트라던지 저는 먹는 빵인지 알았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에서 이르기까지 전문화 돼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거 같습니다. 세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치수나 도면을 작성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좀 아주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과거에는 도제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도 귀금속 디자인 학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또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사설 교육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이제 과거에는 그다지 높지 않다가 갈수록 높아져서 2년제에서 4년제 이상의 부분도 석사, 박사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예체능 계열 쪽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이고요. 인문계열 조금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성상 굉장히 섬세하고 직무상 정교해야 하는 어떤 손동작이라던지 표현력, 창의력, 디자인 감각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육체적 피로도도 견딜 수 있는 또 한편으로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관한 확장할 수 있는 직업도 이제 제품을 이렇게 보석도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 가구 디자인, 우리 앞에서 자동차 디자인 이렇게 봤었는데 자동차도 이제 디자인 할 수가 있고, 팬시나 휴대폰 스마트 폰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다양한 컬러를 또 잘보다 보니까 컬러리스트 라고해서 virtual merchandising 라고 해서 바라 볼 수 있는 가치 중심의 디자인의 뭐 책도 디자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석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NCS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까요? NCS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인쇄, 목재, 가공 공예의 대 분류를 볼 수가 있을 거 같고요. 중분류에는 공예 쪽이 이제 가깝습니다. 그 다음 소분류에는 귀금속 보석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세 분류에 가시면 보석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 단위를 보면 10가지가 이제 능력 단위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학생들이 찾아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잘 가이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예, 귀금속, 보석 디자인하고 나서 능력 단위별로 하나씩 보고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첫 번째로 환경이라 것이 보이니까 항상 우리가 전체적인 산업 환경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연도별 종사자로 본다면 노동시장 분석에서도 아, 비교적 좀 인원은 작은 거 같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주얼리 시장이 얼마나 아세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무려 189조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주얼리 산업이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도 호황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귀금속 보석이라는 게 이제 사람에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데 도시형 제조업 이라는 겁니다. 도시 내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소규모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품장을 아주 고가에 하는 이제 명품들도 있고요. 굉장히 또 한편으로 노동 집약형 이면서 친환경 산업이라고 합니다. 기계나 설비들을 통해서 자동화가 요즘 많이 되어가지고 대량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가에 많을 걸 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굉장히 문화적 확정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렇게 산업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석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능력단위로 본다면 아무래도 보석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기획 능력이 중요 할 것 같고요. 재료 조사하던 지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리고 렌더링 하는 부분들 도면을 제작하고 컴퓨터를 이제 모델링하고 디자인 또 품평회가 중요하거든요. 샘플링 만들고, 샘플링에 따른 전략을 만들어 내고, 제품을 또 한편으로 관리해내는 능력, 해내는 능력 이렇게 해서 NCS에서 중요한 능력 단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석 디자인 도면 작업이 이제 보석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스케치 아이디어 디자인에서부터 최종 확정된 디자인을 가지고 컴퓨터 디자인에서 샘플 작업을 위해서 제도 도구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면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석 디자인 도면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은 이제 작업을 하는 준비도 필요 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핸드 드로잉이 이제 하시고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선택하고 준비하고 재료에 이제 특성에 따라서 보석 디자인 제도에 전문 도구를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3D 캐드를 이제 활용해서 뭐 요즘 3D 프린터도 있으니까 모형 제작 이라든지 시제품 제작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 기술, 태도를 본다면 KS규격 이라든지 국제 규격에 따른 제도법이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디자인 제작에 따른 전문적인 이해, 도면을 또 출력하는 방법 이라든지, 도면의 종류라든 지, 보석과 귀금속 재료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응용할 것인가. 그래서 필요로 하는 기술로 본다면 도면을 판독하고, 그리고 도면을 또 필요로 하는 걸 기획하고 제작하고, 재료를 선정하고, 입체에 형상을 미리 이제 보고 평판하는 기술도 필요할 것 같고요. 태도로는 아무래도 결정된 디자인을 도면화하려는 기술이 필요하고 굉장히 체계적인 정리정돈 정확한 치밀함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도 이제 어떤 걸 최종안으로 해야 될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 될 거 같습니다. 학습 모듈도 보면 우선 디자인에서부터 도면작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학습 모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하나, 하나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모듈도 이제 학습 도면 작업이라는 도면 그 실제로 그려보고 완성하고 이런 것들도 뭐 시간이 되면 동아리, 디자인 동아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 공유해서 이제 제품 만들 때 보석 디자인 만드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만 꼭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개발팀이라던 지 아이디어 제안하는 친구들하고 또 마케팅 하는 친구들하고 협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도 보석에 스토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직무에 대한 직무 기술 보려고 하기 위해서 보석 디자인가면 도면 작업하기 위해서 확정된 디자인을 가지고 그걸 또 디자인하고 샘플 작업하고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종합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대상을 설정하고, 소비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 그 더 선진국이라던 지, 잘나가는 거죠. 보셔야 되겠고, 연도별 히트 상품들도 다른 경쟁사들 상품들 거시적인 시장 변화에 대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만든 멋진 보석들 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시대들 오길 바랍니다.